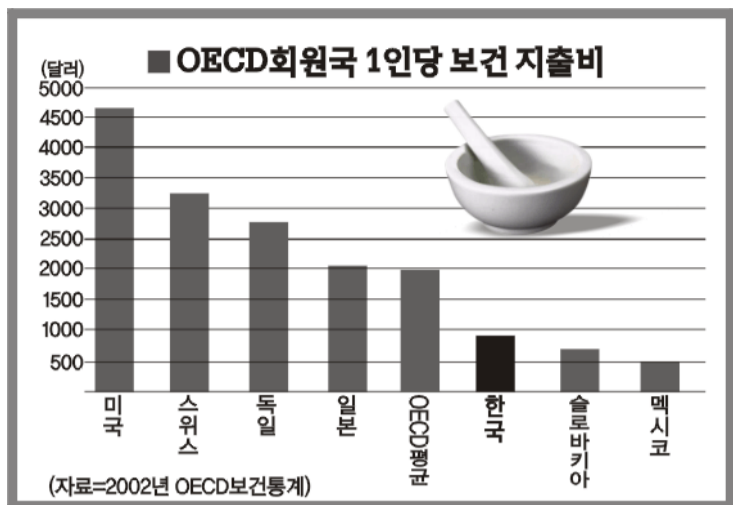


한국 보건수준 OECD 國 하위권

1인당 의료비 900弗...26국중 23위 GDP대비 보건 지출도 5.9% 그쳐 수명 男71.7-女79.2세 평균 밀돌아

우리나라의 의료-보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보건지출 비율에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가 회원국의 의료-보건 수준을 조사한 결과, 국가와 개인이 지불한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900달러로, 조사대상 26개국중 23위를 차지했다. 관련 자료가 없는 룩셈부르크, 폴란드 등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

나라보다 의료비 지출이 적은 나라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멕시코 3개국뿐이었다. 국민 1인당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미국으로 4600달러에 달했으며 스위스는 3200달러, 독일은 2750달러였다. OECD회원국 평균은 2000달러였다. GDP 대비 보건지출액 비율도 우리나라는 OECD전체 평균 8%에 한참 뒤지는 5.9%를 기록했다. 그나마 멕시코가 5.4%를 기록, 우리나라는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 하지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인당 보건비 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7.4%로 회원국중 최고를 기록했다. GDP대비 보건 지출 비



율에서는 미국이 13.3%, 스위스는 10.7%, 독일은 10.6%로 선두권을 형성했다. 유아 1000명당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7.7%로 전체 회원국중 5위를 기록했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71.7세, 여성의 평균수명은 79.2세로 OECD 평균(남성 73.9, 여성 80세)을 밀돌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의료보험이 확대 실시되면서 지난 10년간 보건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GDP대비 보건지출 비중이 낮다는 것은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선진국에 비해 많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성준기자 alex@sgt.co.kr

서울아파트 평당 800만원 넘었다

부동산뱅크 리26개 단지 시세 조사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주택가격 급등에 힘입어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평당 8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뱅크 리서치센터는 지난 15~18일 서울지역 2126개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이 803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올 들어 6개월 사이 아파트 평당 가격이 100만원 상승하면서 800만원대를 돌파하게 된 것이라고 부동산뱅크는 설명했다.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지난해말 강남에서 시작된 아파트 가격 폭등이 강북까지 확산된 데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열기로 가격거품이 형성된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뱅크는 풀이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4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1251만원), 송파구

(1004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천구가 503만8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주공1차 10평형으로 4750만원을 기록했고, 남가좌동 백조 17평형이 365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서울 아파트의 평당 전세가격은 476만4000원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59.3%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도봉구로 74.0%를 기록했고, 강남구는 47.1%로 가장 낮았다. /강갑수기자 kks@sgt.co.kr

재건축 열기로 상반기 100만원 올라 강남구 1442만원 최고... 서초-송파順

대한 열기로 가격거품이 형성된 때문인 것으로 부동산뱅크는 풀이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가 144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1251만원), 송파구

은행 대금업 내달 허용방침

금감위, 來 12일 최종결정

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다음달중 확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지난주말 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다음달 12일 열리는 금감위 간담회에서 이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최근 재정경제부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은행이 자회

사로 할부금융사를 설립, 대금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되 할부금융사의 업무중 대출 등 부수업무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두달여동안 공청회와 금감위 간담회를 통해 격론이 벌어졌던 은행의 대금업 진출이 다음달중 허용하는 쪽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그러나 은행 영업점에서 고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은행의 대금업 진출과 관련, “자회사 방식으로 유도하되 모회사인 은행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은행의 대금업 진출 허용여부를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윤진식 재정부 차관은 “금감위의 의견을 더 듣고 정부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해 은행의 대금업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앞으로 밝아야 할 절차가 더 있다”고 말했다. /이의란기자 tom@sgt.co.kr

기업, 투자선호 아세안 1위 산업연구원 1000개사 조사

해외에 투자한 국내기업의 3분의 1이 중국에 진출했지만 향후 투자지역으로는 동남아국가연합인 아세안(ASEAN)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성과는 기대에 못미치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자원부와 산업연구원(KIET)이 지난 5월 국내 1000여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한 ‘제조업 해외투자현황’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20%가 해외에 투자중이며 26%는 투자를 계획하거나 고려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외투자업체의 투자대상국은 중국이 34%로 가장 많은데 이어 아세안(25%), 북미(15%), 일본(8%), 서유럽(5%), 중남미(4%), 동유럽(3%) 등의 순이었다.

반면 계획-구상중인 업체의 향후 투자대상국으로는 아세안(37.1%)이 가장 많았고 북미(19.7%), 일본(18.9%), 중남미(7.6%), 서유럽(5.3%), 동유럽(3.8%) 등의 순이었다. 중국(0.8%)은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해외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3.0(보통)을 기준으로 매출성장률(2.8) 시장점유율(2.7) 경상이익률(2.6) 등이 모두 보통 수준에도 못미친 가운데 진출한지 오래된 업체일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박종훈기자 kkk@sgt.co.kr



의료 상담도 인터넷으로 21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인터넷 화상을 통해 치아교정을 원하는 네티즌과 상담하고 있다. /이종덕기자

창업열기 17개월만에 최저

6월 2793곳 신설... 전월보다 854개 줄어

지난 6월중 월드컴과 지방선거 여파로 창업열기가 급속히 얼어붙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6월중 어음부도율동향에서 지난달 8대도시의 신설법인수가 2793개로 전월에 비해 854개 줄었다고 밝혔다.

이는 극심한 경기불황때인 지난 해 1월(2762개)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월드컴열기에 창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지방선거로 영업일수가 줄어 법인의 설립 인허가도 늦춰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8개도시의 부도업체수가 164개로 11개 늘어나 부도법인대비 신설법인의 비율은 전월 23.8배에서 17배로 폭 떨어졌다. 한편 전국 어음부도율은 0.04%로 1990년 11월 이후 최저수준이었던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부도업체수는 349개로 32개 늘었지만 작년 월평균 부도업체수(440개) 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주춘열기자 cljoo@sgt.co.kr

경제가데

게놈지도 생보사에 악재 수명연장 연금부담 늘어



지난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인간게놈지도 때문에 생해보험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금융연구소는 21일 생해보험협회지에 기고한 ‘게놈프로젝트가 생보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벽한 게놈지도의 완성으로 향후 5~10년 이내에 유전자정보를 이용한 ‘맞춤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인간 수명이 획기적으로 연장돼 생보사의 연금지급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게놈연구의 진전으로 보험가입자들이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알게 될 경우 생보사는 더욱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에게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질병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보험가입을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고 질병발생 위험이

낮은 사람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돈 되는’ 고객은 빠져나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고객만 수두룩하게 되는 셈이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유전자정보를 알아내 가입을 사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란기자 tom@sgt.co.kr

은행 해외점포 실적 호조 순이익 최고 10배나 늘어

올 상반기 시중은행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점포에서도 짭짤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상하이와 싱가포르지점의 실적 호전으로 해외점포순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300만달러에서 657만달러로 2배 이상 늘었다. 외환은행은 44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고 기업은행도 27% 증가한 869억달러에 이르렀다. 조흥과 한미은행은 각각 2359만달러, 273만달러로 5%정도씩 늘어났고 신한은행도 지난해 대규모 적자를 났던 도쿄와 오사카지점의 흑자전환으로 193만달러에서 2302만달러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주춘열기자 cljoo@sgt.co.kr